

생활속 영어 배우고 선진 공교육 체험

호주 시드니 NSW주교육청 25일 공립학교 체험학습 설명회

공립학교 정규 수업 받고 짝공과 홈스테이

‘공교육의 천국’으로 불리는 호주의 공립 학교에서 정규 수업을 받고, 방과 후에는 호주 학생들과 어울리며 하루를 보낸다. 호주 시드니, 뉴사우스웨일주(NSW) 지역 초·중학교에서 현지 학생들과 똑같이 수업을 받고 호주 생활 속에서 영어를 배울 수 있는 ‘호주 시드니 NSW주교육청 공립학교 체험학습 설명회’가 오는 25일 오전 11시 KT광주정보통신센터 3층 소회의실에서 열린다.

이 프로그램은 기존의 해외 유학 및 어학 연구 전문 업체가 주관하는 행사와 달리 호주의 ‘시드니 NSW주교육청’이 주관한다.

호주에는 총 39개 대학교가 있으며 이중 37개가 국립대고, 국립대 가운데 8개가 세계 100위권 대학에 드는 명문이다. 초·중학교도 2천200개에서 2천여개가 공립학교일 정도로 호주는 세계 공교육의 천국이자, 모범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호주 공립학교 체험학습 프로그램은 ‘시드니 NSW주교육청’이 직접 주관해 학습 내용 및 전 과정을 관리하기 때문에 참가 학생들에게는 선진 교육 체험은 물론 영어 학습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참가 학생들은 ‘시드니 NSW주교육청’이 지역 내 2천200개 학교 가운데 선정한

곳에서 수업을 받게 된다. 교육의 효과를 위해 한국 학생끼리 공부하는 프로그램 대신 한 반에 1~2명만을 배정해 수업을 받는다. 또 방문학생들은 버디(Buddy)라고 불리는 호주 짝공과 홈스테이를 하게 된

다. 버디는 해당 학교장이 봉사활동이 활발하고 성적이 우수한 학생에 한해 선정하며, 이 버디는 한국 학생의 친구 겸 도우미 역할을 해준다. 학생의 안전을 위해 등하교 픽업은 필수다. 더욱이 하루 중일 학교와 소풍, 가정 등을 오가며 부담감 없이 영어와 친숙해질 수 있는 게 최대 장점이다.

이 프로그램은 호주 공립학교의 정규 수업과 외국 생활 및 영어 공부가 하나로 혼합된 형태여서 모집 조건도 다른 영어권 프나 영어연수에 비해 엄격하다. 참가자

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거나 성적이 상위 25%안에 들어야 한다.

프로그램 과정은 1주~12주까지 구성돼 있으며, 개인 사정에 따라 원하는 주(주 단위) 만큼 신청하면 된다. 참가비용은 1주당 호주달러 기준 1천100달러이다.

호주 시드니 NSW주교육청 공립학교 체험학습 설명회 참가 대상은 초등학교 3학년년부터 중학교 3학년을 둔 학부모이다. 문의는 02-722-3612·010-2805-3006.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지난해 호주 시드니 스트라스필드 고등학교에서 열린 공립학교 체험 학습 프로그램에 참가한 한국 학생들이 쉬는 시간을 활용해 호주 친구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스트라스필드 고교 제공)

조선대 국내외 자연과학계 거장 초청 강연

7월까지 '인문학과 자연과학의 만남'... 일반 시민에도 개방

우리나라의 자연과학계를 주도하는 유명 학자들이 조선대에서 초청 강연을 갖는다.

조선대는 “오는 7월까지 '인문학과 자연과학의 만남', '해의학자 초청 강연' 등을 통해 국·내외 유명 학자들의 초청 강연을 열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첫 초청 강연자는 뇌과학 전문가 박문호 박사다. 박문호 박사(한국전자통신연구원 책임연구원)는 오는 19일 오후 7시 중앙도서관 7층 영상세미나실에서 ‘뇌과학과 인문학의 활로’를 주제로 강연한다.

5월 14일에는 박석재 한국천문연구원장이 ‘하늘과 우리 민족’을 주제로 강연할 예정이다.

박 원장은 미국 오스틴 텍사스에서 시간에 따라 변하는 블랙홀 모델 박사 학위를 받은 ‘한국

인 블랙홀 박사 1호’다.

6월 9일에는 ‘다윈’ 전문가인 장대영 동덕여대 교수가 ‘끝나지 않는 다윈 혁명’을 주제로 강연에 나선다.

이 밖에도 4월 28일에는 일본 사상사를 연구하는 사와이 케이치 교수(일본 게이센여자학원대학)가 ‘이퇴계와 아마자키 안사이’를 주제로 강연하고, 7월 9일에는 윤대선 박사(고려대)가 ‘현대 사상가 순례-레비나스의 사상과 타자 철학’을 주제로 프랑스의 윤리철학자인 레비나스의 사상을 소개한다.

전지용 조선대 인문과학대학(사학과)은 “이번 특강은 대학생 뿐 아니라 일반시민에게도 개방되며, 담론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U-러닝 교육도시 프로젝트 심포지엄

광주시교육청 오늘 김대중컨벤션센터서

광주시교육청이 13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U(유비쿼터스)-러닝 교육도시 건설 프로젝트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광역권 한국교육학술정보원장의 기조강연과 시 교육청 관계자의 프로젝트 설명, 전남대 김희수 교수의 주제발표, 토론 등이 있을 예정이다.

이 프로젝트는 학생의 다양한 재능을 발굴, 육성하고 교사들의 교실수업과 학생들의 자율학습을 체계적으로 지원해 교육의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것이다.

이를 위해 시간, 장소 등에 구애받지 않는 교육 시스템과 인프라를 구축, 실행하는 것으로 올해부터 2013년까지 281억원이 투입된다. 수업의 질을 높이기 위한 지원체계 구축, 방과후 가정학습 등 자율학습 지원 프로그램, 교원, 학부모 연수 등 다양한 사업이 포함돼 있다.

올해 31개 시범학교를 중심으로 운영하고 2013년까지 전 학교로 확대할 계획이다. /채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교육대, ‘곡성교육문화센터’ 문 열어

광주교육대학교(총장 박남기)가 옛 곡성 석곡고등학교 건물을 리모델링해 콘도 형식의 숙박 시설과 세미나 및 각종 체험교육장을 갖춘 ‘곡성교육문화센터’로 탈바꿈시켜 문을 열었다.

광주교육대는 곡성교육문화센터 개소로 인해 대학 재학생들의 수련 및 교외 활동은 물론

‘다문화 가정 자녀 대상 미래 국제 지도자 육성 프로그램 운영 사업’에 박차를 가하게 됐다.

또한 각종 학술대회, 학회, 세미나, 수련 활동에 적합한 시설로서 외부 기관, 단체, 학교, 기업체 등의 사용 신청도 받을 예정이다.



광주여대 중소기업 CEO 특강 큰 인기

광주여자대학교(총장 오장원)가 중소기업 CEO 특강을 3년째 운영하면서 학생들로부터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이 사업은 광주여대와 중소기업청 공동주관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개선과 중소기업으로의 인력유입 기반 조성을 위해 시행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지역 내 유망 중소기업 CEO를 매주 수요일과 목요일 주2회 초청해 릴레이 특강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또 강좌 기간 중에는 유망중소기업을 직접 탐방해 관련시설과 제조방법을 견학하는 일정도 포함돼 있다.

이두표 교수 ‘독수리...’ 논문 국제저널 게재

호남대학교 이두표(생명과학과) 교수의 ‘독수리의 남 오염에 관한 연구’ 논문이 생태독성 분야의 저명한 국제저널인 Ecotoxicology(2월호)와 미국의 Environmental Health Sciences에서 발행하는 Environmental Health News 3월 4일자 New Science 4월에 상세하게 소개됐다.

전 세계적으로 멸종 위기에 처해있는 독

수리의 급격한 개체 수 감소의 원인을 밝히기 위해 비무장지대 일원에서 연구조사를 벌였던 이 교수는, 이번 논문에서 독수리가 남 중독으로 죽어가고 있음을 밝혀내 국제 조류학계에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광주 전문계 고등학생 10년만에 40% 줄어

일반계는 6.6% 감소

광주지역 전문계 고등학생 수가 10년만에 40% 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일반계 고등학생은 감소폭이 훨씬 적은 6%대에 불과, 일반계와 전문계의 양극화가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시교육청이 최근 발간한 교육통계연보를 분석한 결과 2008년 기준 전문계(실업계) 고등학생 수는 1만5천645명에서 1998년 2만5천796명에 비해 1만151명(39.4%)이 줄었다.

매년 1천명 안팎 학생이 준 것으로, 학교

수가 13곳에 불과한 점을 고려하면 2년짜리 학교 1곳에 해당하는 학생수가 감소했다. 교원수도 1천220명에서 991명으로 229명(18.8%) 감소했다.

일반계 고등학생 수는 1998년 5만2천218명에서 4만8천714명으로 3천466명(6.6%) 감소에 그쳤다. 특히 2002년 4만1천347명을 최저점으로 1천~2천명 씩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교원수도 2천481명에서 2천840명으로 359명(14.5%) 늘었으며 학교는 42곳에서 49곳으로 7곳이 신설됐다. /채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2009년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주택보급 정부무상보조금 60% 신청/접수

주택용 태양광발전 시스템 설치에 전기보급비 80% 이상 지원

내 집 전기는 내가 직접 만들어 쓴다~!

그동안 100만호 보급사업에 참여하셨던 분께

그동안 100만호 보급사업에 참여하셨던 분께... (세부 설명 생략)

신청자격: 2009년 3월 31일까지 신청, 4월 30일까지 접수

지원내용: 설비보급비 60% 지원, 전기요금 지원 80% 이상

신청처: COSMOENG (주) 코스모이엔지

문의: T. 080-7272-7000

(주)제주부궁화관광 제주도 여행 89,000원

제주도 여행 89,000원

제주도 여행 89,000원

제주도 여행 89,000원

제주도 여행 89,000원

제주도 여행 89,000원

제주도 여행 89,000원